

메주고리예



Medjugorje

July, 2007 제39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회개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메주고리예를 통해서 이끄시는 이 위대한 계획 속에서 너희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회개시키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싶어 하신다. 또 모든 존재의 시작이고 마침이신 그분께 향하는 길로 온 세상을 부르시고자 하신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곳에 현존함으로써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큰 은총에 너희 자신을 열라고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진심으로 너희 모두를 부른다.

너희가 바친 모든 희생과 기도에 대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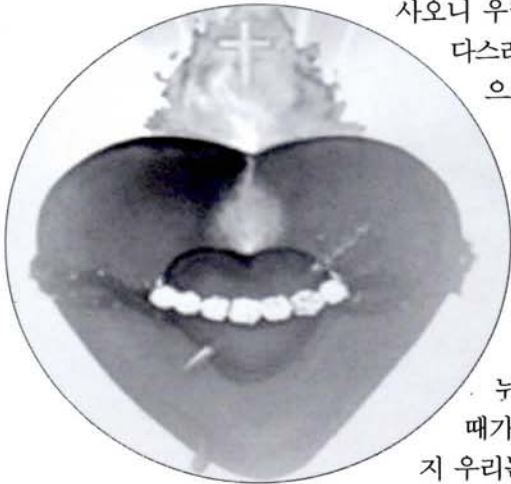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2007년 6월 25일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 26주년 메시지

예수 성심께 가정을 봉헌하는 기도.

오,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지 성녀 말가리따에게 가르쳐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당신께 가정을 봉헌하며 의탁하오니 이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스리소서. 우리는 이제부터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살 것을 약속드리오며 당신께서 언약하신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또 모든 덕행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 하겠나이다. 당신께서 경고하신 대로 세속과의 타협을 배척 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통하여 깊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마음을 다스려주소서. 우리의 임금님신 당신을 깊이 사랑하오며 영성체를 지주함으로써 이 사랑을 더욱 키워가려 하나이다.



거룩하신 예수성심이시여!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고 가정의 모든 영성적 세속적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즐거울 때 축복하여 주시옵고,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 중에 당신을 거슬러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오, 거룩하신 예수성심이여!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그를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시어 깊이 뉘우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죽음이 우리 가정에 슬픔을 가져올 때 떠나던지 남아 있든 지 우리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겸손하게 받아드리겠나이다. 또 우리가족들은 언젠가는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랑으로 재결합될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위안을 얻겠나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 성심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의 자비에 찬미의 노래를 부르리이다.

우리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호자 성요셉을 통하여 이 봉헌을 함께 드려주실 것을 청하오며 이 거룩한 봉헌이 늘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선교회의 신부님들과 모든 사제, 수도자들을 위하여...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 회원님들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성모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치유하여 주소서.
- 이 죄인에게 메주고리에 순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 신분 때문에 고통 받는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산모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예수님, 엄마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세요.
- 사제 성소를 기억해 주시고 봉사자로 인도해 주세요.
- 신경남, 백요셉, 윤종식신부님,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을 봉헌합니다.
- 이혼한 딸과 어린 손주를 보살펴 주시기를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어머니의 마을과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자연 유산된 아이들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저의 가정이 영육간에 건강한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 예수님 성모님, 처음 복사를 하는 아들들을 봉헌하오니 축복해 주세요.
- 불쌍한 연옥영혼들과 낙태된 아기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성 가정이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본당신부님께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성시간을 봉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 000의 가정과 형제들, 조상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성모님, 토마스과 자녀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소서.
- 성모님, 장애아인 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해주세요.
- 메주고리에 성모님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의 가족을 불러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 메주고리에 가시는 신부님과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듬뿍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 티없으신 성모성심께 마약, 오류, 물질만능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해주길 봉헌합니다.
- 예수님, 성모님, 아들이 두려움 없이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주소서.
-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임아델라 자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된 이들이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 보살펴 주소서.
- 위기를 맞고 있는 000의 가정이 치유와 회개의 은총으로 교회로 돌아오도록...
- 000와 000 자매님의 투병생활에 함께 하시어 그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아 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 주님과 성모님의 보살핌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변화된 삶의 은총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광을 위한 작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불안한 삶의 현실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언니와 동생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화를 청하며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친정 식구들의 평화와 믿음, 부모님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새벽미사에 참례하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비를 구하며, 장부에게 알맞은 일을 주소서.
- 냉담중인 남동생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소서.
- 흥 바오로의 가정의 성화와 물질적 축복과 치유를 위해, 흥 아녜스의 수도성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5월 메주고리에 순례때와 요조신부님께도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사랑하는 한국신자 여러분!

-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 26주년에 -

요조 조브코 신부 OFM



미국에 사시는 모든 한국신자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11월 미국에서 여러분과 사랑과 열정과 신앙으로 만났던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과 열정,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만남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모님의 메시

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사무엘은 하느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졌을 때, 은총의 물방울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26년 동안 메주고리에 발현하시면서 성모님이 주시는 은총의 메시지들을 단 한 마디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과거의 기억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좋은 추억이 되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속에 살아 있었던 그 때의 뜨거운 체험들이 굳은 믿음으로 성장하여 여러분의 이민 생활에 위로와 격려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을 나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서로 도와주며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을 찾아갔을 때, 그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모든 정성을 다해 저를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제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살고 계시는 한국 교포 신자 여러분,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그만큼 많

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마치 한 지붕 속에 살고 있는 듯 모든 것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정신적으로나 내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영향권에 안에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속에서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교포 신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용기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이 지배하는 물질만능주의의 유혹에서 가족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한국인들의 열심한 신앙을 보존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청하며 목주를 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목주기도 그 자체가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모님의 손인 목주를, 손에 꼬옥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면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목주기도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혹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지켜줄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잘 돌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처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때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물질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시대에서 윤리적인 위기속에 내던져진 우리 아이들은 신앙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부모들의 진실된 기도와 사랑으로 방황하는 그 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성서는 "빵을 달라는 자식에게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자식을 위해 눈물로 드리는 부모들의 기도에 응



발현신에 한국인들이 봉헌한 성모상

답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오천 오백명의 고아들과 함께 저도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의 지향을 위해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있어서 한국 신자 여러분들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것은 저 뿐만 아니라 평화의 모후로 26주년 동안 메주고리예를 찾아오신 성모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의 그 마음은 26년 전 여섯 명의 어린 아이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의 메신저로 살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발현언덕을 찾아가서 한국인들이 봉헌한 성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곤 합니다. 그 멀고 먼 나라, 두 개로 나뉜 작은 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26년 동안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예 마을에, 수 없이 많은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모여서 매일 매일 기도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 조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성모상을 봉헌했다는 사실!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그 거룩한 곳에 자신들의 성모상을 봉헌하고자 했는지... 그런데 마치 성모님께서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인들이 성모상을 봉헌하기를 바라신 것처럼 한국인들을 선택

하셨습니다. 처음 발현하셨던 모습으로 발현언덕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성모님! 전 세계의 순례자들을 바라보시는 성모님!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는 왼손으로 당신 가슴을 가르키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가슴을 보아라, 너희들은 나의 이 가슴에 새겨져 있단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먼 길을 찾아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서 오라는 듯 오른손을 내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손을 내밀어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그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26년 동안이나 우리들을 찾아 주신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저를 맞이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몸은 이렇게 먼 곳에 있지만 제 마음과 기도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과 함께 그분의 외이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강복을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발현 26주년을 맞는 평화의 모후 동정마리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한국과 미주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신자들에게 강복하시고 그 평화가 영원토록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M**



순례를 통해 신앙의 답을 찾아 나선다



수 많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메주고리에의 발현 언덕

1981년 6월 24일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에 있는 메주고리에 마을에서 여섯 명의 어린 아이들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보았다. 그때부터 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메주고리에에는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고 있는 장소로 유명해졌다. 매년 이곳을 찾아 오는 순례자들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다녀갔으며 발현 26주년이 되는 올해는 전세계로부터 1백 만 여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영적 순례를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요일 저녁 어느 날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63세의 맥널티와 그녀의 친구 스캇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진 아드리아 해안에 있는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 공항에 도착했다. 166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1,300 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메주고리에 마을을 찾아 온 그들은 줄을 서서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택시들을 지나쳐서 보스니아의 산골짜기 마을로 가는 버스에 짐을 실었다. 네 시간 후, 일행들은 과거에는 이름도 생소했던 산골 마을이

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는 수 많은 순례자들로 붐비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발현지인 메주고리에 마을에 도착했다.

이른 새벽 5시 50분경 석류나무 열매와 무화과나무 흔들리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시간에 50여 명의 순례자들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일행들과 함께 성모 마리아의 첫 발현 장소로 알려진 언덕을 오르면서 맥널티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고요함을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이곳에서 모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주고리에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기대하지만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왔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세상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약간 갈색 눈에 회색 머리인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체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톨릭 신자인 그녀는 세 번이나 이곳을 방문했던 여동생의 권유로 순례를 계획하던 중, 어느 일요일 미사에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순례를 신청했다고 했다. 맥널티는 바티칸이 루르드와 파티마처럼 메주고리에의 성모 발현과 이곳에서 일어난 기적들에 대하여 아직은 공식적으로 인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러나 지난 일년 동안 그녀가 7일간의 순례를 가고자 하는 열성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30대 40대가 된 6명의 발현목격증인들이 26년간 한결같이 전하고 있는 성모님의 메시지와 그들의 체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 관광이 아닌 발칸반도의 작은 산골 마을을 찾아오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발현하는 이곳에서 더욱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순례여정

스코틀랜드 그룹의 윌리엄 프래저 지도신부는 1984년 처음 메주고리예를 왔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 곳은 포도와 담배를 재배하는 몇 백 가구 정도의 가난한 농가로서 여관이나 식당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 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묵을 수 있는 깨끗한 숙박 시설들이 마을에 들어섰으며 길은 아스팔트로 깨끗이 포장되어 있었다.

프래저 신부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 온다고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주고리예의 순례는 단지 장소를 찾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자신이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열수 있었던 체험을 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이 찾고 있는 답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지요. 지금은 조사 중이라서 바티칸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메주고리예에서 체험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많은 의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곳은 영적으로 재충전 되는 곳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다미닉 토위 신부는 순례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면서 발현산 언덕을 올라갔다. 1 시간 후 포도밭과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얀 대리석의 성모상 앞에 모인 일행들에게 토위 신부는 이곳에 오게 된 것을 침묵 중에 기도하면서 묵상해 볼 것을 권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맥닐티는 많은 사람이 거쳐간 흔적이 역력한 울퉁불퉁한 바위들과 돌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았다.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신앙과 기도에 대해 불신하지 않을 것이며, 더 자주 이곳을 찾아 올 겁니다.” 그녀는 이곳이 하느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느낌을 준다고 하며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음을 기뻐했다.

회의론자들은 성모마리아의 발현이 26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이곳의 발현이 아직 현지 교구의 주교와 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마리아의 발현에 대한 주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의 바티칸에서는 메주고리예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한 사실여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M**

Special correspondent Karla Adam in London and researcher Samuel Sockol in Jerusalem contributed to this report.

By Mary Jordan
Washington Post Foreign Service
Monday, June 25, 2007; Page A01에서
기사를 발췌하여 정리함 · 편집부 ·



"마리아의 전구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윤 종식 디모데오/ 의정부 교구/

전례학 박사 과정 로마유학/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과 8월에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만큼, 성모님에 대한 교회의 사랑도 매우 열정적이다. 가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7월 16일) 축일을 비롯하여 성모 대성전 봉헌(8월5일), 성모 승천 대축일 (8월1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8월22일) 기

념일이 있다. 전례력으로 볼 때, 연중시기로서 이 대축일과 기념일들은 예수님의 공생활에 함께 하신 동정녀 마리아께 드리는 교회의 공경심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공생활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그분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교회의 깊은 공경심이 표현된 날들이다.

1. 시기적으로 먼저 맞이하는 가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7월16일)은 '비옥한 정원'이라는 뜻의 '가르멜 산'과 연결된다. 이 산은 지중해변의 항구인 하이파에서 시작하여 25km 이상 연결되어 있는 에스드렐론의 평야에 이르는 산줄기이며, 최고봉은 546m이다. 모래와 광야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의 눈에 초록빛이 가득한 가르멜 산은 하느님의 현존의 표상으로 이해되었고, 말씀을 들을 때의 영화와 풍요로움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사 35:2, 아가 7:6, 아모 1:2 참조). 또한 엘리야 예언자가 참된 신앙을 밝히기 위해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그곳에 야훼를 위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다. (1열왕 18:19-46). 12세기 중반 서방의 경건한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피정과 내적 쇄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13세기 초 예루살렘의 총대주교 알베르토 아보가드로는 그 은수자들을 조직하여 그들에게 수도회의 '규칙서'를 제정해주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경당에서 기도생활을 하게 하였다.

즉, 이들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봉헌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1298년에 보니파시오 8세에 의해 '가르멜 수도회'로 인준을 받았다. 영국의 가르멜회 수도자인 성시몬 스톡은 1251년 7월16일 복되신 동정녀로부터 자기 수도회를 위해 특별한 권한을 받는 환시를 보았다. 곧, 수도자의 망토(Scapolare)를 입고 죽는 이는 누구나 구원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스카폴라를 몸에 지니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확장되었고, 16세기에는 7월16일이 '수도복의 축일'로 알려지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이 축일은 '가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이란 이름으로 제정되어 기념일로 지내게 되었다.

마리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되도록 초대하는 복음 말씀과 더불어 본기도는 이 기념일의 종합적 의미를 알려준다. "주님, 비오니 영광스러운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성모의 보호를 받는 우리로 하여금 산같이 높으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소서." 이 기도에서 신앙인의 목표가 산의 표상으로 묘사된 주님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높은 곳으로 오르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로마의 에스퀼리노 언덕에 그리스도의 모친이며 최초의 성전이신 동정 마리아에게 봉헌된 대성전을 기억하는 '성모 대성전 봉헌' (8월5일) 기념일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는 구세주를 낳아서 젖을 먹이신 여인의 행복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신 성모님의 행복을 묵상하고 성찰한다. (루카 11:27-28 참조) 5세기부터 교황은 마리아 대성전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를 거행하였으며, 또한 7세기부터는 성모 대성전이 베들레헴의 구유로 여겨지는 나무가 안치된 후 '구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성전'으로도 알려졌다. 14세기부터는 '성모 설지전 성당'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는 한여름, 8월5일에 기적적으로 눈이 내렸다는 전설적인 자리에 리베리

오 교황 (352-366년)이 대성전을 지었다는 것에서 유래했으며 후대에 교황 식스토 3세 (432-440년)가 개축했다. 본기도에서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의 중재성을 잘 알고 있는 신앙인들은 '성모성'의 뒷부분을 기억하게 하는 청원을 한다. "주님, 비오니 당신 중들의 죄를 용서하시어, 스스로의 행위로는 당신 마음에 들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 성자의 모친 마리아의 전구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목상하는 것이다. 성체성사를 거행하면서 마리아를 '구원된 이들의 합창'으로 이해하며 하나님께 "오늘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천주의 성모 동정 마리아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첫 모습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주셨나이다" (감사송) 라고 교회는 고백한다. 하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의 질투심 때문에 고통받으며 이 세상의 여정을 계속하는 교회는 앞서 그 길을 걸었던 동정녀 마리아와 더불어 그 길을 걸으며 즉, 그 여정의 참된 목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1 고린 15:20-27).

4.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8월 22일)은 1954년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 반포 100주년을 맞은 마리아의 해를 마감하면서 비오 12세가 이 축일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모후'라는 칭호를 부여한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에 기원한다. 여기서의 '모후'는 세상에서 군림의 의미로 쓰이는 것과 달리 '종'으로써 봉사하는 '통치'를 하시는 '모후'를 뜻한다. 즉 마리아의 통치는 주님 탄생 예고 때 어머니의 소명을 받아들이는 데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루카 1:26-38) 모성과 모후의 연결점은 본기도와 영성체 후 기도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당연히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고 '왕후'이시다. '평화의 군왕'(이사 9:5)이라 불릴 메시아를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는 그 사명에 협력하셨으니 하늘에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실 것이다. M

3. 비오 12세 교황은 1950년 모든 성인 축일에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성모 승천을 교의로 선포했다. 여러 교부들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오, 예루살렘의 티모테오, 투르의 그레고리오 등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되었던 성모 승천의 이야기가 믿을 교의가 된 것이다. 6세기 전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기념일', '마리아의 잠드심', '마리아의 하늘에 오르심' 축일을 지냈다. 마리아 축일 (8월 15일)을 시작하는 행렬을 위한 7세기 말의 옛 로마 기도문을 보면 성모 승천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축일을 지내오니, 이 날 하늘의 거룩한 어머니께서 일시적인 죽음을 겪으셔야 했으나, 우리 주님이시며 강생하신 당신 아드님을 낳으셨으니 죽음의 사슬에 매여 계실 수 없었나이다" (그레고리오-하드리아노 성서집 661항). 8월 15일에 이 축일을 지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은, 이날이 조베날레 주교 시대 (422-458년)에 예루살렘 근처 카티스마에 세운 마리아 성지의 봉헌 기념일이었던 것이다.

성모 승천의 신비는 계시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 곧, 마리아를 통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게 될 것을

성모 승천의 신비는 계시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 곧, 마리아를 통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게 될 것을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5-5. (426) 성령강림 대축일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은 내 '티없는 성심의 다락방'에서 이 천상 엄마와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여라. -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 이 기도를 자주 반복하여라. 대회년인 서기 2000년까지 아직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습관이 될 정도로 늘 바쳐라. 그리스도 재림의 결정적 시대를 너희가 살고 있으니 말이다. 너희는 지금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는 위대한 기적이 성취될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오직 '사랑의 영'만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오직 '사랑의 영'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실 수 있다. 오직 '사랑의 영'만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 교회와 온 인류를 준비시키어, 영광에 싸여 너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제 '성령'의 거룩하신 활동이 갈수록 강력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너희를 이끌어 '천상 아버지'의 계획을 실현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보편적인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성자께 대한 완전한 증언을 하시는 당신의 신적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너희를 이끌어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너희를 '진리'의 용감한 증인이 되게 하시어 예수께 대한 신앙을 용감히 증거하게 하는 일을 맡고 계신다. 성령께서 하느님 '은총의 빛'으로 너희 영혼을 비추시어 성덕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맡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에게 당신의 거룩한 일곱가지 '은사'를 쏟아 부어 주시어, 너희 삶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꽃핀 정원으로 변화시키는 향주덕과 윤리덕이 활기차게 성장하도록 해주신다. 성령께서는 사랑의 완덕에 이르도록 너희 마음을 길러주시는 일을 맡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 마음에서 온갖 형태의 이기심을 불살라 없애시고, 무수한 고통의 도가니로 너희를 정화시키신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끄시어 더없이 찬란한 광채로 빛나게 하는 일을 맡고 계신다. 그리하면 교회가 너희 '천상 엄마'를 본받아 흠도 주름도 없이 온전히 아름다워져서 땅 위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펼 수 있게 된다. 성령께서는 온 인류를 변화시키시고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어, 만민이 하느님을 향유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새 '지상 낙원'이 되도록 하는 일을 맡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유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재림' 시대 전체가 성령의 시대이다. 그분의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다락방'이 어디서나 불어나게 하여라. 온 교회가 '티없는 내 성심의 영적 다락방'에 들어와서 이 천상 엄마와 함께 끊임없는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 내 티없는 성심은 황금문이니, 이 문을 통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고, 또 '두 번째 성령 강림'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M**

(이 메시지는 파티마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부터 1997까지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

기쁨은 사심 없이 베푸는 마음, 곧 우리가 하느님과 한결같이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을 나타내 주는 기도와 같습니다. 기쁨은 하나의 기도이자,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그물입니다. 하느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쁘게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줍니다. 하느님과 이웃에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에 불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쁘게 살게 됩니다. 세상을 쳐 이기기 위하여 폭탄과 대포를 사용하지 맙시다. 사랑의 연민을 사용합시다. 평화는 웃음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결코 웃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하루에 다섯 번씩 웃어 줍시다.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웃읍시다. 하느님의 평화를 빛내고 불을 밝힙시다. 세상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서 권력에 대한 애착과 모든 미움을 꺼버립시다. 고통 그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수난과 함께 나누는 고통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물이며, 그분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함께 받아들여진다면, 만일 그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감수된다면 그 고통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이 언제나 부활의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슴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느낄 때, 곧 부활의 기쁨이 떠오르리라는 것을 상기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잊어버릴 정도로 슬픔에 자신을 내맡겨 두지는 맙시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돕는 것, 그분이 베푸시는 것처럼 베푸는 것, 그분이 봉사하시는 것처럼 봉사 하는 것,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처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앞 못보는 사람이 편지를 쓸 때에 도와주거나, 혹은 그저 그 사람 곁에 다가가 앉아 얘기를 나눈다거나 편지를 부쳐주는 일, 또 누군가를 방문하거나 꽃 한 송이를 갖다 주는 일 등 이런 것은 모두 작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결코 보잘것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기쁨... 기도는 사랑... 기도는 평화... 기도를 말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구하시오,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을 알고 있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욱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서 죽을 때만이 삶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

<샘에서 생기를... 에서 발체>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와 함께 저는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신부 옮김

(이 기도문은 특별히 성모 승천 대축일에 적합합니다.)

1) 예수님, 저의 하느님이신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성취하셨으며 마리아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당신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시기에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 당신의 삶이 제 희망의 이유이고, 제 믿음의 기초가 되기에 저는 당신을 찬미합니다 ... 당신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로 마리아의 몸과 마음 모두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제 마음이 노래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삶에서 드러난 당신의 능력과 사랑에 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소서.

- 예수님, 저는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침묵중에 이 기도를 반복한다.)

3) 주 예수님, (...) 당신은 항상 성모님이 삶의 중심이시고 생애의 이유였습니다. (...) 천사의 아뢰므로 그분이 당신의 어머니가 되셨을 때, 당신은 그분 존재의 중심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저는 당신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마니피캇을 묵상한다.)

-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침묵중에...)

4) 예수님, (...) 예수님, 그분의 육신과 영혼을 하늘로 불러 올리심으로써 상급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그분이 당신에게 보여준 그 믿음에 대하여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을 태중에 모시고 있던 그분



을 어느 누구도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께서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당신을 낳으시고 통나무로 만든 구유 당신을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모성애로 당신을 돌보아주셨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헤로데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팔에 감싸 안고 이집트로 데려가셨습니다. 망명 생활은 바로 당신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과 요셉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예수님, 저는 당신을 헤로데로부터 보호하셨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당신께 흠송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침묵중에...)

5) 예수님, 마리아께서는 당신을 성전에 봉헌하시면서 깊은 행복감을 느끼셨지만, 또 불안하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시메온 노인과의 예언자 만나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시메온은 그 만남으로 기쁨에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당신이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될 때 받게 될 고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루카 2: 25-35)

- 예수님, 당신을 봉헌하신 어머니와 함께 성전에서 당신께 흠송을 드리나이다. (침묵중에...)

6) 예수님, 마리아께서 모성애로 당신을 가르치며 교육하셨기에,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열두 살 난 당신을 데리고 예루살렘 순례 길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 당신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신 마리아께서는 성부의 뜻이 언제나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당신이 성전에 남아 계셨음을 깨달으셨습니다!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이 아드님이신 하느님의 말씀만을 위한 집이 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

- 예수님, 제 마음을 지켜봐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 (침묵중에...)

7)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나자렛에서 오랫동안 숨은 생활을 하시고,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지혜와 지식이 날로 자라나셨으니 당신을 흠송하고 감사드리나이다. (...) 저는 오늘 마리아를 저의 어머니요, 교사로 선택하고 어머니의 학교에 입학하여 당신께서 어머니와 함께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자 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당신의 가정과 같이 되고,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하여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하소서.

-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저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모범을 따릅니다.
(침묵중에...)

8) 예수님, 마리아의 요청으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갈바리아에 이르는 당신의 길을 동행하신 마리아를 십자가 아래서 저의 어머니로, 저를 그분의 자녀로 맺어 주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그분은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겪으시고, 사랑하며 용서하셨으며, 마침내 당신의 고난이 죽음으로 끝이 났을 때, 하염없이 신음하셨고 당신이 계시지 않음에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분을 찾아주셨으니 찬미를 받으소서. 사도들과 함께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시던 마리아는 기도로서 당신의 현존하심과 영감을 초기 교회에 불어넣어주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 예수님, 영원한

도움과 사랑의 어머니이신 그분 안에서 저희가 기쁨과 희망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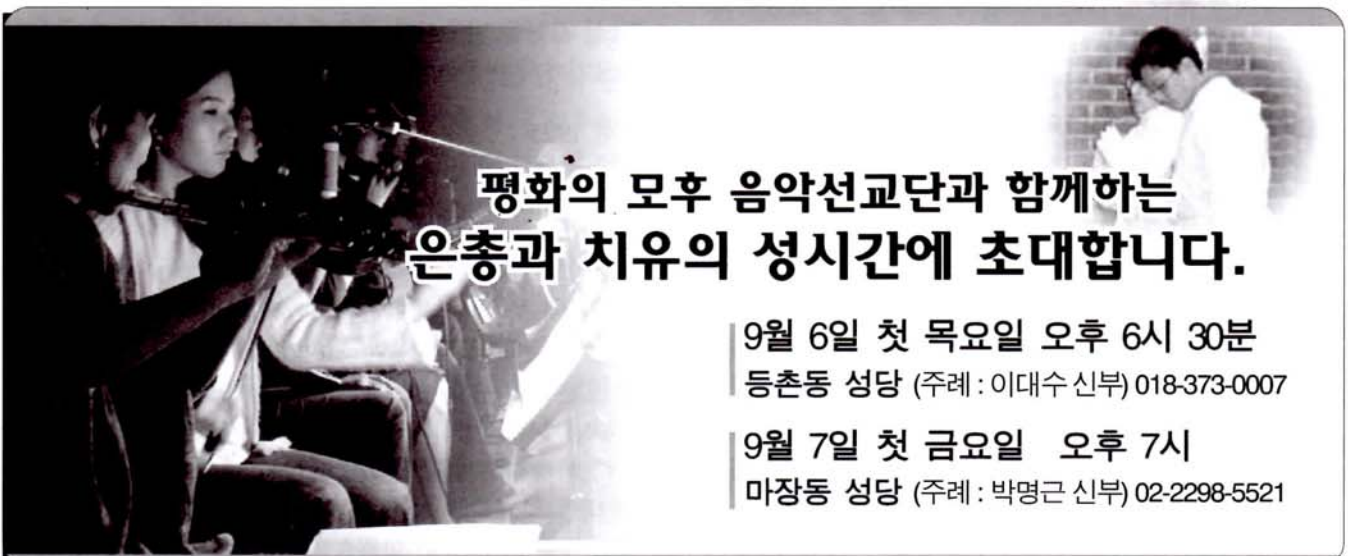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를 당신께서 그분의 생애에서 이루어주셨으니 저는 그와 더불어 기뻐합니다. (이사 61, 10)

9) 예수님, 저는 마리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어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가시기 위해 영광 중에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그 순간, 사도 요한이 묵시록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당신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묵시록 12, 1-2)

예수님, 제 마음이 마리아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과 목적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함께 제 마음이 노래하게 하시고, (...) 그분의 영혼이 지니고 계셨던 그 미덕들로 제 영혼도 꾸며주소서. (...)

- 예수님, 당신께서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그들을 위해 하늘에 영광을 마련하셨으니 당신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침묵중에...)

10) 축복기도 : 예수님, 영광스럽게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와 함께 천상과 지상의 모든 축복으로 저를 축복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제 육신과 영혼을 치유시켜주시어 죽음의 모든 공포로부터 저를 자유롭게하시고 가정과 공동체, 온 세상을 축복하여 주소서. 마리아의 전구로 저를 모든 악과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당신의 어머니가 이 지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숨쉬고 섬기셨던 성령의 능력을, 제 마음과 영혼에 가득 채워 주소서. 당신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평화의 모후 음악선교단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9월 6일 첫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등촌동 성당 (주례: 이대수 신부) 018-373-0007

9월 7일 첫 금요일 오후 7시
마장동 성당 (주례: 박명근 신부) 02-2298-5521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하십시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 김훈 울리아노 옮김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 묵상 : 로마서 8:31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 I 2:21-25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모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이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메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필립비 2:8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요한 19: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묵상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 하느님께 순종하신 주 예수님! 악당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오른쪽 가슴을 창으로 찔러 피와 물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오로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며 높고 깊은지는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오니, 주님! 제게 한 말씀하소서! 십자가 아래 계신 주님, 어머니의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도 들려주소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느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으로 써 저희들이 구원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신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를 모욕하였던 사람들과 저로부터 모욕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청을 들으셨듯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어 제 마음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자비가 심어져 서로 화해하여 평화를 갖게 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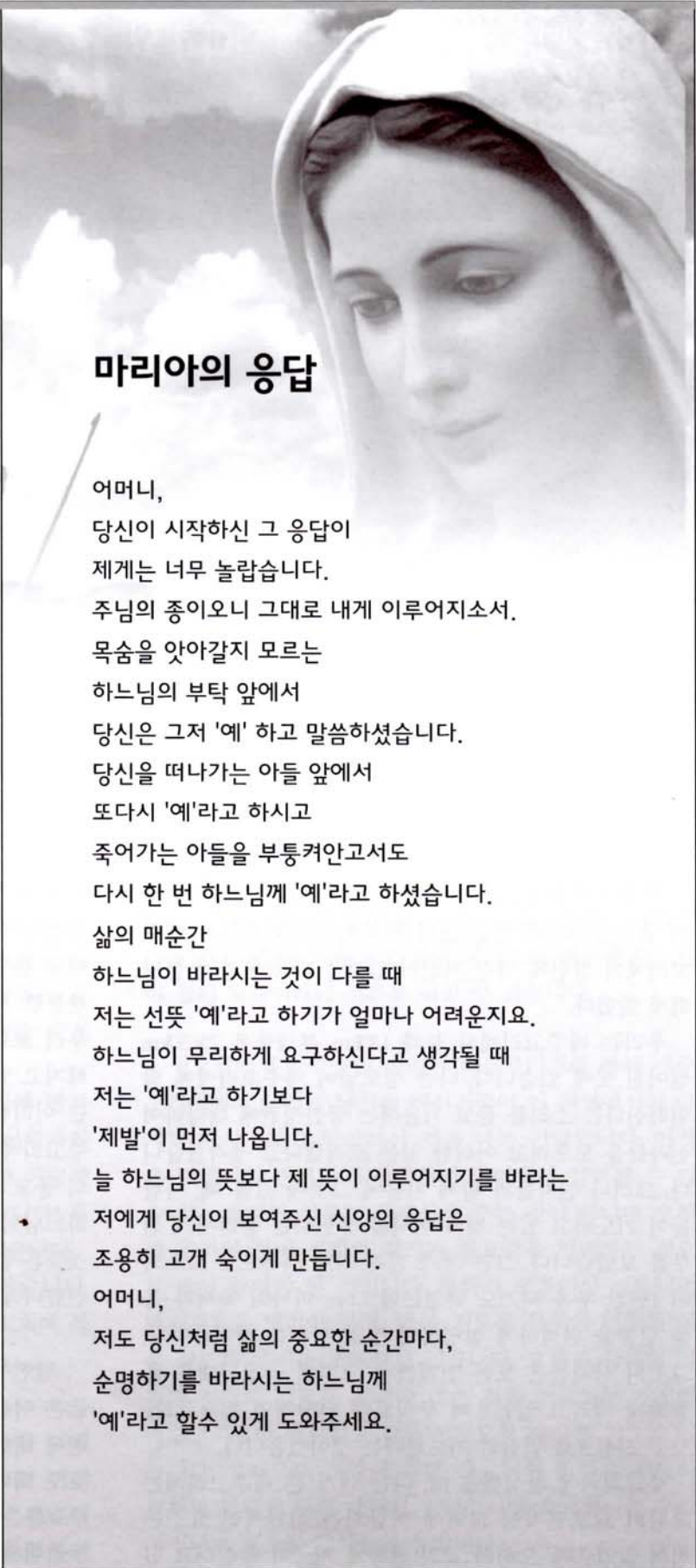
성모님!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계획을 받으시시기에 무척 힘들었으나 아드님과 더불어 순종하셨기에 오늘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모님!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신 성 요한 사도시여! 당신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에, 너희 모든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큰 은총들을 내려 주시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여라. 이제 너희 가정에서, 십자가 앞에서 특별한 봉헌을 하여라. 예수님과 십자가를 거스르지 않고 모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5.9.12>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13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M**



마리아의 응답

어머니,
당신이 시작하신 그 응답이
제게는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하느님의 부탁 앞에서
당신은 그저 '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떠나가는 아들 앞에서
또다시 '예'라고 하시고
죽어가는 아들을 부퉁켜안고서도
다시 한 번 하느님께 '예'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매순간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이 다를 때
저는 선뜻 '예'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느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신다고 생각될 때
저는 '예'라고 하기보다
'제발'이 먼저 나옵니다.
늘 하느님의 뜻보다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에게 당신이 보여주신 신앙의 응답은
조용히 고개 숙이게 만듭니다.
어머니,
저도 당신처럼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순명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께
'예'라고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모님은 나를 위하여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셨습니다"

대주교 프라네 프라니츠

프라네 대주교는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대교구장이었으며 유고슬라비아 신앙 교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메주고리예의 발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는 메주고리예와 불과 130km, 본당들은 25~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나는 성모님이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공산정권에 대항하여 신자들을 모으려고 이러한 일을 조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과 함께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과 미사를 봉헌하는 블라시츠 신부를 보았습니다. 그는 국가 전복 기도 죄목으로 고소되어 1년간 투옥 되기도 하였는데 그는 미사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완벽하게 설명하며 정말 강론을 잘했습니다. 그곳의 사제들은 모든 전례들을 교회의 규정된대로 훌륭하게 지키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들 모두 진심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교회의에 참석했을 때, 나는 내가 본 메주고리예는 교황의 교도권적인 교의에 이탈되는 이단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교회 전통에 지극히 충실하고 있

다고 다른 주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교들은 나를 신임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모님이 발현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메주고리예에서 우리 교회의 복음과 성사 집행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주교인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중요했기에 나의 형제들이 메주고리예에 가는 것을 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도하면 우리 모두 하느님의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은 훌륭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발현목격증인인 비츠카와 마리아를 처음만났을 때 그들은 어린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에 대한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이라도 겪을 각오도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감옥에도 갔었습니다. 다른 주교들은 메주고리예에 가서 개인적으로 판단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나는 목격증인들이 진짜 성모님을 본다

메주고리에는 평화와 기도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츠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주교님, 만일 제게 성모님의 발현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하신다면, 저는 다만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 하면서 성모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의 신앙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확신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격증인들이 성모님을 본다고 해도 그들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모든 결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본질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모님을 공간과 시간 안에서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변모된



대주교 프라네 프라니츠

몸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우리의 주님을 만진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현들은 복음과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때까지 교회를 믿고 하느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성모님의 부르심이며 자극제인 것입니다. 성서가 교회의 손에 있듯이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로부터 메주고리예의 발현이 진실되다는 것을 받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순명하고자 금요일에 빵과 물로 단식하는 신학자 로랑탱에게서 참다운 신학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 희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나는 교회에 복종합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열 가지 비밀을 받은 목격증인 미리아나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일곱 번째 비밀이 인류에 미칠 재앙에 대하여 기도했으나 다소의 부분이

감소되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에 대해 그녀가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징벌들과 재앙들은 묵시록의 양식에 따라서 설명할 필요가 있거나 나머지는 교회가 이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목격증인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들이 듣고 본 대로 말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묵시록에 무엇인가 더 이상 덧붙여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시대의 흐름속에서 묵시록적인 종말의 표징들을 명백히 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안에서는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연기가 교회 내부까지 침범하여 배교자들과 이단자

들의 주장을 통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명백한 묵시적인 표징들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재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격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서의 말씀 위에 무엇인가 더 첨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이미 공적으로 계시된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목격증인 마리아 파블로비치를 통해 메주고리예에서 주시는 당신의 메시지들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면보다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재앙의 선포는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삶이 정화와 회개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평화와 화해, 단식,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이 마지막 시대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에 관한 성모님의 발현은 우리와 교회의 미래에 대해 대단히 염려하시며 슬퍼하시는 우리 어머니의 호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모님의 호소를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황과 신앙교리성에 존속되어 있는 모스타르 주교는 성모님이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심지어 이러한 것들이 사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바리사이드들이 예수님을 사탄의 예언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모스타르 주교의 이러한 의견과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아무도 자기의 의견을 마치 공적인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원회를 구성한 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주교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교회가 메주고리예의 발현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분명하

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침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양심은 메주고리예의 진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은 그 확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 할 수가 없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단지 네 명의 의학자 팀의 조사 결과는 목격증인들은 정신적으로 지극히 건강한 정상인이라고 서명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주고리예는 평화와 기도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내가 마체라타의 카르보니 주교를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파티마나 루르드 그리고 메주고리예에 갈 때 나는 가톨릭 사제로서 순례자들에게 고백성사를 줍니다. 그리고 고백성사를 통해서 성지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다른 모든 곳들을 능가하는 장소입니다." **M**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에서 발췌정리 - 편집부 -)



요조 신부님과 함께 하는 피정과 메주고리예 및 드브로브닉 성지 순례

"미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거룩한 성사입니다. 제대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양팔을 크게 벌리고 계신 성부의 품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지향들을 성체와 성혈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 봉헌하십시오. 성모님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은총의 바다이고 묵주기도는 이 은총을 공급받는 수로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어머니이신 평화의 모후와 마음을 다해 드리는 묵주기도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치유시켜 줄 것입니다."

(2005년 11월 요조 신부님과의 피정 강론중에서...)

- 피정 지도 : 요조 조브코 신부
- 한국어통역 : 남기옥 마르타
- 피정 장소 : 요조신부님의 성 가정 여자 고아원
- 순례 지도 : 김 알폰소 신부 (메리놀 수도원)
- 순례 안내 : 남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 날짜 : 2007년 11월 28일 부터 12월 9일 (11박 12일)
-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610-366-9612 Cell. 917-626-4314 qpmm.org@gmail.com

메주고리에 성모님발현 모습과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신경남 / 프란치스코 수도회

종교 교육학 박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시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 2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소식지를 읽으면서 성모님은 나의 어머니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발현지마다 성모님의 특징과 메시지가 있는데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모습과 핵심 메시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리며 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 시애들의 잼마 -

2007년 6월 25일은 성모님께서 평화의 모후 메주고리에 발현하신지 26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모님은 세례자 요한의 축일인 24일 첫 번째 발현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나 다음 날 당신을 평화의 모후 라고 말씀하신 25일을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6명의 목격자 아이들은 성모님께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왜 이곳에 오셨는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단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주고리에에는 성모님의 발현을 직접 목격한 6명의 목격증인들을 비롯하여 요조 신부님과 2명의 내적 담화자가 있습니다. 목격증인들이 전하는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발현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으며 메시지는 다음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발현 모습

목격증인들에 의하면 성모님께서서는 빛나는 회색 드레스를 입으시고 머리에는 흰 베일, 그리고 열두개의 별이 빛나는 관을 쓰시고 구름 위에서 계신 모습으로 발현하신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얼굴은 타원형에 보통 얼굴 모습이고 볼은 약간 밝은 장미색이며 그 신비스러운 구름에 쌓여 발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술은 붉은

색이 감도는 자연스러운 색이고 머리는 검은머리에 눈은 참으로 아름답고 맑은 파란 색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이 기쁜 표정을 지으실 때, 그분의 얼굴에 스며있는 신비한 미소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모님의 키는 165센티(5피트 5인치) 정도에 날씬한 편이고 나이는 18살에서 20살 정도 들어보인다고 합니다. 성모님은 항상 목격증인들을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보여 주실 때외에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손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위쪽을 향하여 펼치고 계시는데, 영광송을 하실 때는 두 손을 모으신다고 합니다. 증인들은 성모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아름다움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드릴 것이라고는 없지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의 개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원한 아름다움이예요. 천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고 그나마 일부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이지요." M

"사랑하는 자녀들아! 특별히 나는 이 본당을 택했고 직접 이끌고자 한다. 나는 이 본당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이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오늘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나와 내 아드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너희에게 메시지를 주겠다."

1984년 3월 1일



서로 도와 주어라.
나도 너희들을 도와 주겠다.



미리야나는 6명의 발현목적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1982년 12월 성탄절에 성모님으로부터 정화의 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날 10 가지의 비밀을 받았다. 성모님께서서는 이후로는 그녀의 생일인 매년 3월 18일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미래에 일어날 10가지 비밀을 아는 미리야나가 몹시 고통스러워하자, 현재까지 매달 2일에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신다. 그녀는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 편집자 주 -

마리아 파블로비치는 1965년 4월 1일에 태어났으며 키가 크고 마른 편이다. 발현산 바로 밑에 있는 그녀의 부모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즉시, 마리아가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기도생활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리아는 복되신 성모님으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성모님께서 어떤 한 순례자의 영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실 때, 성모님은 그 순례자를 나에게 보내 주십니다. 그 순례자는 내가 하는 크로아티아 말을 자기 나라 말로 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1988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밤 11시에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열 두개의 별이 빛나는 관을 머리에 쓰시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베일과 금빛 찬란한 긴 옷을 입으시고 발현산에서 마리아와 이반에게 발현하셨다. 그 날은 전 세계 곳곳에서 온 10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현산에 모여 깊은 침묵을 지키며 성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찬란한 빛속에서 세명의 천사를 거느리고 발현하시어 그곳에 모인 군중들을 보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에게는 오늘 저녁이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다. 젊은이의 시간인 것이다. 이 시간에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세상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로 도와 주어라. 나도 너희들을 도와 주겠다. 더욱 많이 기도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의 평화를 안고 돌아가거라!"

성모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빛나는 십자기를 남겨 두시고 떠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8월 15일 밤 11시 발현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축복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애원하며 말한다. "온 세상이 축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세요! 오직 하느님 안에만 참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있어요. 그 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 밤, 천국이 그 사람들의 영혼안에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벌써 수년 동안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교회의 대축일이 되면 특별한 방법으로 축복을 내리시어 순례자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들 가정과 공동체로 나아가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모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전해 준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리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마리아는 말했다. 그러나 모든 축복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들 각자의 믿음에 의한 것이며 그 축복은 영구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 주는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마리아는 미소를 짓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사제가 아니니까 손짓은 하지 않는게 좋겠지요. 성모님께서서는 언제나 크신 겸손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그 축복은 시공을 초월하여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특별한 축복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1984년 3월 1일 평화의 모

후이신 성모님께서서는 매월 25일에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메주고리에 본당과 온 세계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온 세계를 평화와 회개로 초대하면서 믿음 안에서 보다 더 풍요롭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성모님의 지향이 담겨있다.

다음은 마리아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이 마을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복되신 성모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질문 :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비참한 일들을 당하지요 특히 육체적인 고통을 받지요. 당신이 동생에게 신장 이식을 할 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마리아 : 해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불행하고 어려운 것들을 복되신 성모님과 예수 성심께 봉헌하세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봉헌하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봉헌하면 성모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질문 :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하느님을 믿지 않고 거룩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리아 :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복되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식하며 희생을 바치고 봉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 :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단식하고 희생을 봉헌할 수 있는지 방법은 아무래도 좋은가요?

마리아 :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면 복되신 성모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 요즈음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징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게 아니예요. 성모님은 당신의 메시지에 지금 응답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기도회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또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 주고 그들의 삶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M**

질문 : 마리아, 성모님께서 왜 메주고리에 오시는 걸까요?

마리아 :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하신 성부께서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성모님이 지상의 어느 곳을 택하여도 좋다고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메주고리에 주민들의 굳은 믿음을 보시고 이곳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마리아, 당신은 요즘도 십자가 산에 자주 올라가십니까?

마리아 : 가능한한 자주 올라 갑니다. 나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마다 대단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르기를 즐겨합니다. 가장 험한 곳은 10처와 11처인데 가파르고 험한 돌길에 세워져 있는 14처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질문 : 당신은 발현이 시작된 이래 많은 외국 여행을 하였는데, 아직도 메주고리에가 좋습니까?

마리아 : 그럼요! 복되신 성모님께서 매일 찾아오시는 이 마을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초라한 작은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어디서나 집들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땅은 대부분이 아직도 농사하는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0)

질문 : 이곳 메주고리에 마을이 언젠가는 모두 성지가 될까요?

마리아 : 지금도 이곳은 거룩한 성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 곳곳에서 어머니여 자녀들이 ...

1981년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공산당 정권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6명의 발현목격증인 아이들을 감시하면서 발현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야고보 본당의 주임신부였던 요조 신부도 처음에는 성모님의 발현을 믿지 않았다.

어느 날 성모님은 목격증인들 중에 가장 어린 야콥 출로에게 요조 신부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나 그 당시 야콥의 집은 공산당원들이 지키고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문 밖을 쳐다 보고 있던 야콥은 집 앞을 지키고 있던 공산당원이 갑자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몰래 창문을 넘어 성당에 있는 요조 신부에게 달려갔

다. 요조 신부는 꼬마 야콥을 제대 밑에 숨기고 마을 주민들을 성당으로 모이게 한 후 키가 작은 꼬마 야콥이 잘 보이도록 제대 위에 올려 주었다. 야콥이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하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성당 안에 모여 있던 마을 주민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묵주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하였다. 어린 야콥의 말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주민들을 바라보던 요조 신부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묵주기도를 하던 요조 신부가 갑자기 놀라운 것을 본 것처럼 성가대쪽을 바라보더니 곧 탈혼 상태가 되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오 아름다우신 여인이여..' 라는 성가를 부르며 탈혼 상태에서 깨어난 요조 신부는 성모님께서 성가대쪽에서 발현



야고보 성당에서 요조 신부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하시어 매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 하라고 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성모님의 발현을 직접 본 요조 신부는 6명의 아이들의 영적 보호자가 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에게도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도록 강력하게 권하였다. 그때부터 메주고리에 주민들이 매일 저녁 함께 모여 묵주기도와 미사를 시작한 것이 오늘 날 모든 순례자들을 감동시키는 메주고리에의 거룩한 저녁 예절이 되었다. 마을 주민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자 자연스럽게 공산정권에는 큰 골치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요조 신부에게 성모님의 발현이 거짓이라고 말하라는 압력을 넣었지만 이미 성모님의 사랑에 빠져있는 요조 신부의 열성은 식을 줄을 몰랐다.

그들은 요조 신부를 강제 노동소 감옥에 투옥하여 모진 고문을 가하며 자신들의 말을 들을 것을 강요했지만 요조신부는 죽을지라도 성모님을 배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결국 공산정권은 요조 신부를 회유하는데 실패하자 거짓누명을 씌워서 3년 형을 선고 했다. 그리고 묵주는 물론이고 천주교 사제로서 가장 큰 고통인 미사도 드릴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제한하고 성서와 모든 종교적인 물품들을 빼앗아 불도 없는 어둡고 습기 찬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메주고리에 본당의 시인이며 작가인 스탕코 바실리 신부는 자신이 공산 정권에 강제로 끌려 갔을 때 받은 지독한 고문들과 고통을 회상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조 신부를 생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스탕코 바



본당 성가대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스타코 신부

실리 신부는 메주고리에와 요조 신부를 성모님께서 보살피 주시기를 청하면서 성가를 작곡하여 괴로운 마음을 성모님께 봉헌하였다. 이 아름다운 성가가 처음으로 메주고리에 본당에 울려 퍼진 것은 1981년 8월 30일이였다. 작곡가인 스타코 신부가 직접 오르간을 치며 노래를 불렀다. 이 성가는 즉시 노래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깊이 새겨주었다.

'평화의 모후께' 라는 이 성가는 메주고리에 본당의 미사 시작될 때마다 울려 퍼져서 메주고리에의 상징이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메주고리에 순례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 성가를 들으며 마음으로 메주고리에 본당의 거룩한 저녁예전에 참여하고 있다. 이 후부터 마을 주민들은 혼인잔치에서도 성모님께 봉헌된 이 성가를 불렀다는 것은 이 마을 주민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왜 성모님께서 이 산골 마을을 택하시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다.

우리들은 메주고리에의 성모님 발현 초부터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6명의 목격증인들과 요조 신부님 그리고 그 외에 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인 삶과 희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성가는 성모님의 발현 초부터 성모님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들과 모험들을 말없이 감수하고 있는 목격증인들과 요조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비롯하여 각 국에서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다. 이 성가는 현재 전 세계 각국어로 번역되어 전해지고 있으며 한국어는 시카고 성모 마리아 센터의 한명수 아오스팅 형제님이 번역하였다.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편곡된 가사는 성모님께 대한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1) 온 세상 곳곳에서 어머니여 ~ 자녀들이 어려운 일 가슴에 안고 먼 길 떠나 왔나이다.

(후렴 X 2) 굽어 보시어 위로와 사랑의 손 얹어 주사 나를 위해 우리 주께 평화의 모후 빌으소서.

2) 사랑에 굽주린 나 마음과 몸 상처 입고 내 버려진 고아들 같이 어머니를 찾나이다.

(후렴 X 2)

3) 눈물로 회개하며 변화되기 애원할 때 쏟아주신 놀라운 사랑 어머니를 보았나이다.

(후렴 X 2) **M**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남홍의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서울대교구)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박명근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욱 마르타(선교학 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안젤라

편집부장: 최성득

편집위원: 최레지나, 양의현, 남지혜,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인쇄사, 뉴욕문화인쇄





천국에서 성모님을 만날 수 있대요!

화창한 5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에서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찾아 온 순례자들이 로마 공항에서 모두 만났다. 윤종식 신부님의 안내를 받으며 아씨시, 란치아노, 산 조반니 로톤도, 몬테카시노 순례를 시작하였다. 로마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지하 성당에서 순례의 첫 미사를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하였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지하 성당은 초 한자루를 봉헌하려고 해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곳인데 우리 일행들만으로 미사를 봉헌하니 정말 감격스러웠다. 더구나 7월달에 프란치스코회 수도회에 입회하시는 신경남 신부님이 수도회의 사부님이신 프란치스코 성인의 묘지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신 신부님은 항상 성모님께 대한 사랑에 젖어 계시다. 강론이나 말씀들의 결론은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이다.

성지 곳곳에 가득한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의 발자취를 돌아 보았다. 성당 곳곳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표현한 성화로 가득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성당뿐 아니라 그 장소 전체와 그 곳을 찾아 온 수 많은 순례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평화를 강조하시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거룩한 삶을 느낄 수 있었다.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의 음악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 깊이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향기를 전해주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천상의 여왕이시며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성모님... 온유하

시고 자애로우신 성모님 우리들의 엄마 ... 당신의 사랑과 겸손 앞에서는 사탄도 두려워하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성모님을 보내주신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나이다...

성체 성혈 기적이 있었던 란치아노 성당에 도착하니 한국에서 사목을 하셨던 진 신부님께서 유창한 한국말로 란치아노 성체 성혈 기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다.

"8세기경 이곳 지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한 사제가 성체와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사제의 손에 들려있던 성체와 성혈이 살과 피로 변했습니다. 다섯개의 조각으로 굳어진 이 성혈과 성체는 현대 문명의 과학에 의해 성체는 남자의 심장근육이며 성혈은 AB형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조각으로 굳어진 이 성혈은 각 5그램의 무게라서 다섯개의 조각을 합치면 25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 또는 세개, 다섯개를 같이 달아 보아도 그 무게는 여전히 5그램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뜻은 미사를 집전하시는 사제가 성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갬다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조각의 성체를 받아 모셔도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개 조각의 성혈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오상을 뜻합니다. 우리 가톨릭은 전 세계에서 다른 언어로 미사가 봉헌되고 있어도 같은 양식의 전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현존하심이 재현되는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 더욱 더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작은 조각안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완전하게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성체 기적이 이곳에 모셔져 있지만 성당은 비어있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자리를 물질과 쾌락이 지배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즐기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하루 미사 참례하는 것 만으로는 신앙 생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체 앞에서 자주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메주고리예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잘 살펴 보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을 체험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에 겨운 한 자매님의 조용한 흐느낌 속에서 모두 엄숙한 마음으로 성체와 성혈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지향의 기도를 드렸다. 기적의 성체 옆에는 아름다운 성모님이 모셔져 있었다. "성모님의 얼굴이 왜 저렇게 슬프실까요?" 하는 형제님의 말을 듣고 성모님을 바라보니 정말 마치 너무 울어서 눈이 충혈된 것처럼 보이고 무척 슬퍼 보이셨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텅 빈 성당의 감실 안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며 혼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일까 ...

미국 팀의 지도신부이신 백 신부님은 개신교 신자이실 때 성령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분도 수도원

의 사제가 되셨다. 신부님께서서는 예수님과 성모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분이심을 체험하시고 수도명을 요셉 마리아로 하셨다. 백 신부님은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눈빛이 달라지신다. "여러분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나는 개신교 신자일 때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저 성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미사 때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받아 모실 수 있고 성체 조배를 하면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성체를 하시면서 마음과 몸을, 모든 기도를 감실 안에 살아 계시는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성모님께서서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청을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꼭 잡으세요. 그 이상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미사 후에 비오 신부님의 일생에 대한 영화를 보았다. 살아 생전에 끼고 계시던 오상의 성혈이 묻은 장갑으로 안수를 받았다. 분도 성인의 몬테까지도 순례를 한 후에 다시 로마로 가서 하루를 쉬고 다음 날 교황님이 계시는 베드로 대 성전을 둘러 보았다. 자유 시간에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온유한 아버지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의 무덤을 참배했다. 돌아가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변함 없는 사랑을 받고 계시는 교황님의 무덤 앞에서 당신의 자녀로서 열심히 가톨릭 신자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로마의 박해시대 때 죽은 순교자들의 믿음의 현장인 까타콤베의 습기 찬 지하에 있는 무덤들을 돌아 볼 때는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뱀어 버리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 안에 있는 한 무덤을 보고 살레시오 회 수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나누어 본다. "이 무덤을 보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의 관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한 조각을 한 훌륭한 관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는 이 관 뚜껑을 보세요. 이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것은 그 동안 정성을 들여 관을 준비한 사람이 죽자, 석공이 뚜껑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대충 덮어버렸음을 말해 줍니다. 이 관을 만든 석공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모두 웃음)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사람은 죽기전에 어리석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쓴 것입니다. 정교한 관과 아무렇게나 잘라서 덮어버린 돌덩어리 관뚜껑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지난 일들은 물론이고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후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마을 메주고리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속인 메주고리에!! 기도의 학교인 거룩한 마을 메주고리에!!

드디어 순례를 시작한지 5일만에 메주고리예를 향한 관문인 스포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맑고 푸른 하늘은 마치 성모님께서 치마자락을 펼치시며 당신을 찾아 먼길을 찾아 온 자녀들을 품에 안아 주시는 듯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공항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 신부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농담을 한다. "신부님, 메주고리에에 가까이 도착하니 얼굴이 달라지시네요" 신 신부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너무 좋아요. 살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도 로마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곳을 올 때였어요. 로마 저쪽에서 이곳을 바라보며 저기만 지나면 어머니가 계시는 메주고리에 마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들은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 신부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모두 감격을 한방씩 먹고 할 말을 잃었다.

이미 어두운 시간인데도 버스 운전수는 꾸불꾸불한 산에 있는 좁은 길을 마치 동네 길을 가듯이 완벽한 안전운전을 한다. 그 동안 조용하던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이 마치 이야기 보따리가 담긴 보물상자를 연 듯이 메주고리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쉬임 없이 해주신다. 순례자들은 모두 몸과 마음이 마치 시공을 초월하여 이야기의 현장에 있는 듯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듣고 있다.

야고보 성당의 정겨운 두 탑이 보인다. 그레고리오 형제님은 "여러분, 이제 곧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에 마을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이



곳은 전 세계에서 수 천 만 명의 순례자들이 다녀 갔으며 앞으로는 더욱 많은 순례자들이 올 것입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성모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이곳을 '거룩함과 기도를 가르쳐 주는 학교'라고 부르는데 성모님께서 이 마을의 야고보 본당을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 되도록 직접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저녁 예절은 요조 신부님에게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에 따라 발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3시간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모님을 뵙고 싶으시지요? 저도 성모님을 직접 뵙고 싶은데 메주고리에 순례를 50번을 왔지만 아직 한번도 성모님을 개인적으로 뵙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를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아주 가까이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 오실 때의 처음 모습과 떠나실 때의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에서 제가 성모님을 직접 뵙 것 이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과 공동체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풍성한 은총 받고 오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 길을 오신 여러분이 마치 일생에 한번뿐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 저녁 예절을 참석하시다 보면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은총과 선물을 담아 주시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이 마을 주민들은 친절하고 겸손하게 순례자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발현 초기에 마을 주민들에게 "나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맞아주기 바란다." 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 먼 길을 왔으니 피곤하고 불편하겠지만 우리들도 마을 주민들처럼 편안한 순례가



되도록 서로를 배려한다면 성모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벌써 몇몇 형제 자매님들은 짐도 풀지 않은 채 기다리고 계시는 엄마를 만나러 가듯이 성모님께 달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평화의 마을 메주고리에! 기도의 학교인 거룩한 마을 메주고리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속인 메주고리에! 고해 성사와 회개의 바다인 메주고리에!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를 말 할 때 쓰는 단어들이다. 그렇다!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서는 평화가 없고 기도가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육간에 지친 당신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품속에서 쉬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지나 온 삶에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 보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신다.

눈으로 볼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산과 산에 둘러 쌓인 조그만 깡촌 산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게 큰 성당만 있는 메주고리에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순례자들의 얼굴에 서서히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솟아남을 본다. 새벽 4시에 모두 함께 모여서 십자가 산을 올라갔다. 돌산에 있는 십자가의 길 14처를 묵상할때 중턱에서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다웠다. 순례자들 중에는 다섯명의 어린아들이 함께했다. 매일 저녁 3시간동안 하는 야고보 본당의 예절을 지루해하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뻐다. 어느날 저녁 성시간이었다. 옆에서 함께 미사에 참석하던 엘리사벳이 성시간때 몸을 굽혀서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고개를 들고 성체가 모셔진 제대 위를 한참 바라보고 있던 엘리사벳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엘리사벳 : 할머니, 매일매일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성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대!

할머니 : 뭐라구?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니?

엘리사벳 : 성모님이!

할머니 : 엘리사벳, 너 지금 성모님 보았니?

엘리사벳 : 응, 나 지금 성모님 봤어!

할머니 : 그랬구나. 엘리사벳은 좋겠다. 그래, 성모님이랑 무슨 이야기했는지 할머니한테 말해줄래?

엘리사벳 : 응,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하이 엘리사벳' 하고 불러서 보니까 성모님이 저 위에 계셨어. (손가락으로 제대 위를 가리킨다.)

다음은 엘리사벳이 전하는 성모님과 영어로 나눈 대화이다.

성모님 : 하이,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들린 곳을 바라보니 야외 제대위에 아름다운 성모님이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다고 한다.

엘리사벳 : 성모님, 너무나 아름다우시네요!

성모님 : 그래, 나는 아름답단다. (미소를 지으시며...)

엘리사벳 : 성모님은 정말 예쁘세요. 다시 또 성모님을 볼 수 있나요? 보고 싶을거예요.

성모님 : 그래, 엘리사벳이 매일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다시 나를 만날 수 있단다!

엘리사벳 : 성모님, 약속할게요. 매일 묵주기도 할거예요.

엘리사벳은 성모님이 핑크 드레스에 짙은 보라색 가운을 입고 계셨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 저녁 성 시간 때 엘리사벳이 흥분된 목소리로 할머니의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엘리사벳 : 할머니, 저기에 또 성모님이 오셨어! 할머니, 보이지?

할머니 : 그래?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모습이니?

엘리사벳 : 응 메주고리에 성모님 처럼 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손에 묵주를 들고 계시.

할머니 : 성모님이 무슨 옷을 입고 오셨는지 보이니?

엘리사벳 : 하얀 드레스에 파란 가운을 입으셨는데 할머니는 안보여?

할머니 : 그래, 할머니는 성모님이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벳이 보았으니까 기쁘네.

뒤를 쳐다보며 누군가를 찾던 엘리사벳이 갑자기 뛰어간다.

할머니 : 엘리사벳 어디가니?

엘리사벳 : 저기 아빠가 있으니까 성모님 사진 찍으라고 말해주려고.

아빠를 보고 달려가는 엘리사벳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부디 엘리사벳이 당신이 해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영육간에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늘 보살펴 주세요.' 백 신부님께서 어머

니 마을에서 미사를 드릴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다.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성모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물어 보았지만 엘리사벳의 대답은 늘 똑 같다. "매일 묵주기도를 하면 천국에서 다시 성모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던 엘리사벳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지려는 얼굴로 "할머니, 나 거짓말 아니야. 성모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며 팔에 매달린다. 평소에도 묵주기도를 할 때 환희의 신비 2단인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기도할 때는 마치 성모님이 자기를 찾아 오신것 처럼 좋아하던 엘리사벳은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을 만난 것뿐인데 왜 자꾸 물어 보는지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되는 것 같다. 이번 순례에도 많은 순례자들이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

점심 식사 후, 몇년 전 처음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만난 후 이번 7월 27일 프란치스코회의 수도자로 입회하시는 신 신부님의 체험담을 모두 감동 깊게 들었다. 김 마리아 자매님과 이 토마스 형제가 연주하는 음악이 무척 은혜로웠다. 5월은 성모님께 봉헌된 달이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5월이면 성모님께 사랑을 봉헌하는 '성모님의 밤'을 갖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 우리도 은혜로운 이번 순례에 감사드리면서 행사에 필요한 성모님 상을 구입하려고 자매님들과 함께 성물 가게로 갔다. 많은 아름다운 성모상이 있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때 저 만큼에서 엘리사벳의 모습이 보인다. 자매님이 "아, 저기 엘리사벳이 오네요. 우리 엘리사벳에게 성모상을 정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다. 성물 가게에 있는 성모상을 둘러 보던 엘리사벳이 한 성모상을 가리키며 자기가 본 성모님과 똑같은데 손에 묵주가 없다고 한다. 옆에 있는 묵주를 성모상의 손에 들려주니 똑 같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이제 막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송이 같다.

저녁 늦게 시작한 행사에는 외국 순례자들을 포함하여 거의 120명이 참석했다. 자매님들의 손길이 닿으니 마당에 꾸며진 제단이 너무나 예쁘게 단장되었다.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이 성모님께 봉헌하는 음악을 들으며 촛불 봉헌과 꽃 봉헌한 후 배주와 엘리사벳, 안젤라 자매님과 김학식 형제님이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했다. 아름답게 꾸며진 마당에 어두움이 내리면서 촛불에 비추이는 모셔진 성모님의 얼굴이 무척 행복해하시는 것 같다. 야외에서 있었던 1부 행사가 끝나고 곧이어 2부 행사로 남마르따 자매님과 멜린다, 롤렌, 그리고 루이지가 함께 하는 치유의 기도회가 이어지면서 음악에 맞추어 함께 노래

를 부르니 성모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다.

아름다운 드브로브닉 성지 순례를 마치고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있었던 파견 미사때 신 경남 신부님과 백 요셉 마리아 신부님께서 치유의 안수를 해주셨다. 안수를 해주시는 두 신부님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이 흘러 내리고 모두들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육간의 치유 시간을 가졌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이신 이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토마스 형제님이 요조 신부님을 치료하기 위하여 몇번씩 왕래를 하면서 많은 회생을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덕분에 요조 신부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모님께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봉헌하면서 기도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다짐해본다. 이제 메주고리에는 다시 오고 싶은 고향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담겨졌다. 일정에 의한 순례는 끝났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평화의 은전으로 다섯배 열배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들의 순례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

요조 신부님은 메주고리예를 찾아 온 우리들이 이 세상에 하느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나를 위해서만 살아 간다면, 마치 온전 한뼘을 땅에 묻어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M**

"사랑하는 자녀들아!

모든 것, 특별히 기도와 증거하는 일에 있어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라고 나는 너희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없이 나는 세상을 도와줄 수 없다. 너희가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작은 것에서도 나와 협력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전히 나에게 의탁함으로써 나를 도와다오. 그러면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 시작한 이 길로 너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1986년 8월 28일 / 성모님의 메시지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당신의 메시지를 읽고, 실천하며,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부분적으로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성모님의 바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된 메시지 모음집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중 번역을 하게되었습니다. 또한 84년부터 지금까지 성모님께서 주고 계시는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큰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번역을 시작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말로 된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책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손쉽게 읽고 묵상하며 실천에 옮김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의 모범을 통해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이 음악에는 성모님과 함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흠송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성시간 노래와 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와 음악들이 간단 한 가사와 짧고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흠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과 단체 성시간, 그리고 각종 피정과 교육시 유용한 음악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번역/ 신경남신부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서적 보급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하여라'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로 딸 및 성바로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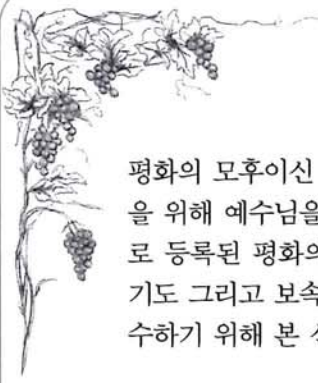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어머니 마을로 이사 했습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y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 Fax. 610-366-9614 • qp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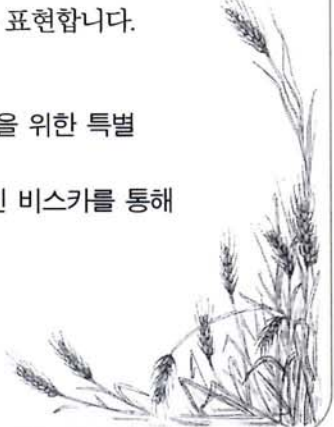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본당: _____

회원번호() 가까운 이웃에게 소식지를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강진희, 길마리아, 광복화, 권혁구, 김갑식, 김건일, 김 골롬바,
 김금성, 김로사, 감마테라, 김만춘, 김복선, 김봉희, 김성주, 김세록,
 김순복, 김순자, 김소란, 김시순, 김숙희, 김아그네스, 김안나, 김옥희,
 김영보, 김원경, 김주희, 김정선, 김창성, 김켄드릭, 김태자, 김혜숙, 김혜정,
 나찬희, 노마리아, 노순재, 당계순, 문경아, 문방자, 민병돈, 민장석, 민정숙,
 민헬레나, 박금자, 박덕기, 박만서, 박민경, 박병철, 박선미, 박연희, 박영희,
 박정희, 박프란체스카, 박혜선, 배민부, 백안셀모, 백안드레, 서진희,
 성고스마, 성순희, 송정순, 송희철, 신순덕, 엄경숙, 엄봉화, 연재희, 오한,
 오경옥, 오승영, 유대우, 유제영, 유혜순, 윤경만, 윤은경, 윤석중, 윤현옥,
 윤혜정, 윤희정, 안젤라패션, 이광순, 이글라라, 이동우, 이마리아, 이문자,
 이명희, 이은경, 이정옥, 이정희, 이추민, 이현, 이희선, 잔슨윤숙, 전분석,
 전선희, 전진숙, 전현숙, 전해연, 정남순, 정광선, 정명좌, 조수산나, 조안나,
 조영옥, 조인영, 조희남, 조혜경, 주태형, 지현남, 진인숙, 차준구, 최동원,

최루시아, 최영자, 최윤경, 최윤희, 최현경, 최혜진, 추호숙, 팽정숙, 표상순,
 한복진, 한파스칼리나, 황정애, 황혜정, 허데레사, 호문숙, 호소피아, 홍마르타, 홍지영,
 5월 순례자 일동, 켈거리기도회

Fairview Cleaners, K. Larcenaire, Y. L. Cynthia Ziegmann,
 Yong Chen, Joo D. Kim, Mary Lee, Sunhwa Beal, Tak U. Lee,
 Ul Leach, Henry Yerger, Pauline L. Skehan, Timothy G. Swain,
 Chong S. Gamble, Myong S. Spence, Sunok Blum,

38호 부족금을 보내주신 익명의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회원님들의 정성에 보답하겠습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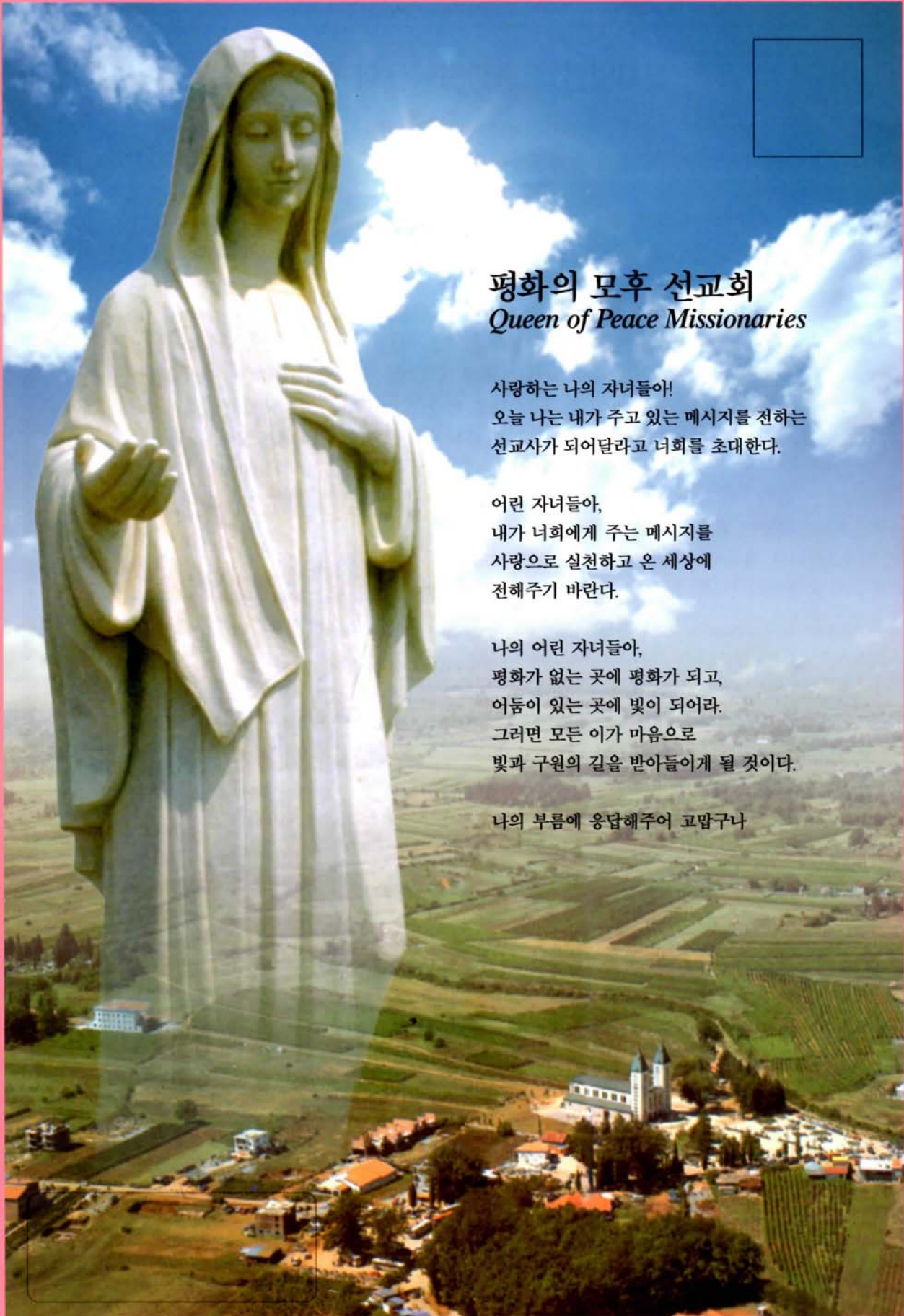
38호 부족금 및	
39호 후원금	\$11,230.00
지출 (39호 소식지)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10,800.00
잔액	\$ 430.00



진정한 마음의 겸손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망과 불행으로 이끄는 거짓 겸손은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대 자신들을 남보다 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본성을 감추시고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 독자가 보내오신 묵상 글입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USA

남 미카엘라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n.org@gmail.com

KOREA

허인젤라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17-785-3535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acan@hotmail.com